

“화합으로 불교중흥 세계평화 이룩하자”

종정예하, 을미년 신년하례 법회서 강조
성우스님 전계대화상 위촉…대중사 품서

진제 종정예하가 불기 2559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의 화합으로 불교중흥과 세계평화를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종정예하는 지난 9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 신년하례 법회서 “한국불교가 정신세계의指南(指南)이 되어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가르침을 내렸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종정예하는 신년하례를 맞아 종도들에게 내린 법어를 통해 오늘날 불교계의 시급한 과제로 ‘사부대중의 화합’을 꼽았다. 종정예하는 “수행승가가 먼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 사바의 화합과 평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화합의 첫걸음은 출가본분사를 잊지 않는 것이니 일체처 일체시에 본분사를 놓지 않는다면 법다운 생활 속에 이사에 원융하고 공신을 잃지 않아 자연히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올 한해 남북화합과 조계사 성역화 사업, 간화선 세계화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종정예하는 “금년에는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있는 세계평화대회 및 세계고승무차선대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라고 종도들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종단 법계의 상징인 전계대화상에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스님을 위촉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정예하의 뜻을 실천해 종도들은 화합하는 지혜로써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새해의 밝은 기운이 온 나라를 환하게 비추고 종단 안정과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하례에 이어 수행력과 덕망을 겸비한 원로 스님들에게 수여하는 종단 최고 법계(法階)인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이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종정예하는 원로의원 원경스님, 금정총림 방장 지유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선스님, 해인총림 울주종진스님 등 4명의 스님들에게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하며 “대종사님들의 고구정념한 금언은 사바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되며, 고동 받는 중생들을 크게 쉬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종진스님은 대종사 품서 받은 스님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함께한 대종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려남이 없이 융맹정진할 것”이라며 발원했다.

▶관련기사 3면
동화사=염태규 기자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9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 을미년 신년하례법회서 한국불교가 정신세계의指南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내렸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현대병 마음으로 치유한다

한국문화연수원·자비명상
매월 ‘마음챙김 캠프’ 개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돈 때문에 혹은 자녀와 부부 등 관계로 인해 화를 내고 불안하며 갈등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대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의 마음병을 불교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선보여 주목된다.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스님)과 사단법인 자비명상(대표 마가스님)이 손을 잡고 힐링 프로그램 ‘2015 마음챙김 캠프’를 내놓았다. 이답부터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매월 한 차례씩 연말까지 모두 12차례 진행된다. 마음챙김 캠프

의 특징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치유하면서 힐링 음식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을 비롯해 김동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장, 문진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원 심리학 교수, 한영용 음식전문가, 이윤영 정신건강과 의사, 민지원 요가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화’를 주제로 한다. ‘화! 어쩌란 말이나?’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병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전문가가 시행하는 ‘화 테스트’로 화의 근원과 치유방법을 각자 제시받고,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화를 제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더불어 화를 가라앉히는 음식

을 함께 먹으며 배가의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2월1일까지 2박3일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이와 함께 매월 주제별 캠프가 열린다. 2월은 ‘불안’, 3월은 ‘갈등’, 4월은 ‘돈’을 다룬다. 이외에도 ‘상처’ ‘다이어트’ ‘죽음’ ‘자녀’ ‘부부’ ‘퇴직’ ‘사랑’ ‘꿈’을 주제로 월별 캠프를 진행한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은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이 몸을 지탱하는 요소가 음식”이라며 “마음챙김 캠프는 몸과 마음, 음식이라는 세 박자가 조화를 이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연수원과 자비명상은 지난 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초인적 희생으로 응어리 해소”

총무원장 자승스님, 세월호 참수사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7개월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매진했던 참수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세월호 참수사들과 바지선 봉사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본부 부본부장 금강스님과 백성기 민간참수사 총괄감독, 박경렬 88수중환경연구소 현장소장, 조광현 참수부 단장 등 참수사와 바지선 봉사자 35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7개월간 어두운 바다 속에서 고생이 많았다”며 “아홉 분이 잡들여 있지만 여러분의 초

인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가족들과 국민들의 응어리가 해소됐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백성기 총괄감독은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며, 류충렬 참수사도 “실종자 아홉 분을 못 찾고 수색이 종료돼 마음이 아프다. 활동하는 동안 불교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참수사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단주와 수저세트를 선물하며 “정부 당국이 참수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일 7개월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매진했던 참수사들을 초청해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새해 새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불기 2559년 불교신문이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연재물을 배치했습니다.

- 독자가 주인되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일선에서 포교하는 스님들과 사찰 운영의 주역인 신도들의 일상을 심층 보도합니다. 신행 봉사 천문 등 사찰 활동을 상세하게 신재했습니다.
-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풍부하게 전달합니다.
재가자 참선 지도 경험이 풍부한 박희승 교수가 ‘재가자를 위한 생활참선’을, 장영섭 기자가 불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쉽게 풀어쓰는 ‘불교, 묻고 답하다’를 연재합니다.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홍스님은 정토신앙의 핵심인 ‘아미타경’을 강설합니다.
- 불교문학 중흥을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조성래 고은 김성동 등 불교가 배출한 기라성 같은 작가는 물론 신진문학가들의 글과 목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 생활상담·건강·성보 다시보기 ...
부부관계 자녀교육 고부갈등 애정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불교를 통해 해법을 찾는 상담코너, 스님들의 건강법을 배우는 건강면을 신설했습니다. 성보와 민족문화유산, 역사 등 인문지식을 함양하는 기획도 다수 신설했습니다. 이외 스님 신도들의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편,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망하는 심도 깊은 기획으로 독자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성지순례의 名家
더존투어
■중남미, 아프리카, 발칸, 미주, 유럽, 러시아 전문
■세도나 명상투어 전문
■중국, 인도, 동남아, 부탄, 티베트, 스리랑카 직영
02.738.7661

권대웅 시인의 달 여행 8면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해인사의 눈 쌓인 굴

해인사 방장 스님은 퇴설당에 거처하십니다. 퇴설당은 직역하면 눈 쌓인 집이나 의역 하면 눈 쌓인 굴이 됩니다. 집은 선객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림 법전 스님은 진정 퇴설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스님은 화려한 문필가도 아니셨고 설통을 한 법사도

아니셨습니다. 스님은 다만 전설적인 절구통 수좌이셨을 뿐입니다. 눈 쌓인 굴 안에 글과 말은 부질없을 뿐입니다. 밤에 물고기 달 읽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글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말에 통달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마음을 밝힌 이 뿐입니다. 누더기를 입고도 누에를 기다리지 않고 돌 바리때에 이슬이나 받으려는 그 마음을 어찌 말과 글의 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은 오직 침묵함으로 퇴설당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침묵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침묵을 포

르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침묵을 모르는 자는 퇴설당 밖을 땀땀 돌 뿐 퇴설당 안으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침묵을 아는 자만이 퇴설당에 들어 법을 내보일 수 있을 뿐입니다. 세간에 바람이 불어도 돌 바리때에 이슬을 받는 그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스님을 종정이다 방장이 다 불렀지만 스님은 아마 그 소리에 마음을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일 년 내 눈 내리는 퇴설당에서 세상의 명예는 눈발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입니다. 수많은 눈발 가운데 하나가 유

독 돋보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굵은 눈발도 가는 눈발도 모두 눈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꽃이 피고 새가 울어도 퇴설당에는 일 년 내 눈이 쌓일 뿐입니다. 퇴설당에 꽃은 안에서 피고 빛은 눈 쌓인 굴 그 안에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스님 원적에 드시고 퇴설당에는 지워지지 않는 빛 하나가 화두처럼 성성하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해인사 강원 시절 머뭇없이 굴었던 그 한 때를 참회하며 스님의 원적에 일주 향을 사릅니다.

남해 염불암

가산당 지관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다례재

귀의 삼보하옵고

가산당 지관대종사의 열반 3주기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 및 사부대중께서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 시 | 불기2559(2015)년 1월 28일(水, 음 12월9일) 오전 10시
| 장 소 |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
| 연락처 | 055)934-3000 해인사

